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충북에서 농어업의 길을 찾다

-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충청북도 타운홀 미팅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월 3일(화) 충북 청남대 영빈관에서 충청북도 농어업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비전 설정을 위한 정책 소통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농어업인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농어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과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 도내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농정 방향 및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와 연계한 질의응답, 현장 정책제안 등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충북의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청년농업, 유통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충청북도 농어업인들은 ▲초기 농식품 창업기업의 정부 보조사업비를 자부담금을 집행한 이후 지원하던 방식에서 일부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요청 ▲농업의 국가전략산업화에 연계한 충북도의 핵심역할 설정 필요 ▲친환경농업 확대에 따른 유통 및 판매대책 마련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 설정 필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산양과 혼동하여 염소를 오해할 소지가 발생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필요 ▲제천 청풍호를 국가어항으로 지정 요청 등 다양한 농어업 현장의 요구를 제시하였다.

김호 위원장은 “충청북도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농어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본 타운홀 미팅이 농어업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현장농정 실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타운홀 미팅 전에 충북 보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심화된 농업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시스템 등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한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충남, 전북, 경기, 경북, 강원, 전남, 제주에 이어 충북에서 8번째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경남을 끝으로 전반적인 농업 현장의 의견을 듣는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붙임 : 지역별 타운홀 미팅 일정 1부

담당 부서	농어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이은영 (02-6260-1251)
		담당자	사무관	문병환 (02-6260-1223)

순서	소속		일정	시간	장소
	도	실과소			
계	9개소				
1	충남	농업정책과	'25.12.01.(월)	15:00	스플라스리솜
2	전북	농생명정책과	'26.01.13.(화)	10:30	전주 그랜드힐스턴
3	경기	농업정책과	'26.01.15.(목)	14:30	수원컨벤션센터
4	경북	농업대전환과	'26.01.20.(화)	14:00	스탠포드 호텔 안동
5	강원	농정과	'26.01.23.(금)	14:00	춘천베어스호텔
6	전남	농업정책과	'26.01.27.(화)	14:00	스카이웨딩컨벤션
7	제주	친환경농업정책과	'26.01.29.(목)	10:00	제주 썬호텔
8	충북	농업정책과	'26.02.03.(화)	14:00	청남대 대통령기념관 영빈관
9	경남	농업정책과	미정(협의중)		